서동 축제로 호영남 화합

익산-경주, 축제 기념 양 도시 방문단 상호 방문 교류

익산시와 경북 경주시가 서동 축제를 통해 호영남 화합의 꽃을 피운다.

익산시는 서동 축제 전날인 오는 14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장, 익산시민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경주를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주 방문은 신라 선화공주를 서동 축제가 열리는 익산으로 모셔온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익산 방문단은 경주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환영 행사와 문화유적지 탐방, 선물 교환식 등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서동 축제가 막을 올리는 다음 날에는 경주 방문단이 익산으로 향한다. 경주 방문단은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장, 미리 선발된 선화공주, 각계각층의 경주시민으로 꾸려졌다.

특히 경주가 자랑하는 '신라 고취대'가 서동 축제에서 공연을 하며 백제와 신라의 문화 예술 화합의 장을 만든다. 개막식 무대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함께 올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두 도시 간의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익산시와 경주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1988년 친선을 위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뒤로 25년간 '사돈 도시'로서 협력하며 상생 발전해왔다.

경주시는 올해 기록적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은 익산 수해 지역에 밥차를 보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챙기고, 아낌없이 구호 물품을 지원,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 익산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기도 했다.

두 도시의 아름다운 교류는 민간의 영역까지 번져. 퇴직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나 재향군인회, 자원봉사센터, 예술문화단체 등 양 지역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경주와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후 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며 "서동 축제를 통해 앞으로 두 도시가 동서 화합의 중심이 돼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키움으뜸 가족행복,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개최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는 군산시민의 날 행사가 오는 20일 군산시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핵심과제인 '키움으뜸 가족행복,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주제로, 어린이와 청년을 잘 키우고 잘 가르쳐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자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모두가 잘사는 군산의 모습을 담아낼 계획이다.

올해에는 야외행사가 아닌 시 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해이지만, 기념식 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위로와 희망을 담은 즐길거리를 위해, 1부 기념식, 2부 시민텐션 up! 시 청사 스탬프투어와 부대행사로 27개 읍면동 히스토리월, O.M.G(Oh My Gunsan) 정책홍보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에 1부에서는 어린이 태권도팀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과, 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 수상자 총 28명에 대한 시상, 기념사·축사 등 기념식이 진행된다.

시민들에게 우리 시 주요 청사 시설 5개소(시장실, 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새만금에너지과, 본회의장)를 개방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진행되는 2부 시 청사 스탬프투어는 지난 8월14일부터 25일까지 참가팀을 사전 모집한 결과, 100여명의 참가자가 접수됐으며, 미션 수행 후 스탬프를 완성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대강당 로비에 청년 취업 활성화와 인력수급에 대한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폈다.

이어 자동차세차기 프레임과 건조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두영기전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기업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제3산업단지 패션단지에서 코라스(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등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허전 부시장은 "이번 현장행정을 통해 제기된 입주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허전 익산 부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앞장'

허전 익산부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현장 행정을 펼친다.

허 부시장은 12일 익산제3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들을 방문해 입주기업의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제3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청년 고용 등 모범적인 투자로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마더스제약을 방문해

군산 이차전지 산업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차전지산업 발전방안 전문가 회의

군산시, 연구기관 · 관내 대학… 이차전지산업 육성 위해 힘보태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산단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산 이차전지 산업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1일 실시된 회의는 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관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를 비롯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산학융합원, 군산대·호원대·군장대 산학협력단 등 관내 9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 배터리 리사이클링(재사용, 재활용), 시 주력산업과의 연계, 산·학·연 연계 이차전지 인력양성, 안전플랫폼 구축 등 군산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발표에 나선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은 군산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자동차융합 기술원 노윤식 단장은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 군산시 이차전지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미정 부시장은 "이번 전문가 회의가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이차전지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먹거리위원회, '안전먹거리 전략' 구체화

익산시 먹거리위원회가 행정과 시민 역량을 집결해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전략을 구체화한다.

시는 1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먹거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익산시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먹거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중구·정헌율)는 지난해 출범한 익산시 푸드플랜 민관협치기구로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역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협의기구인 '먹거리위원회 워킹그룹'이 매달 정례회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발굴·수립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올해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전년도 추진 결과 공유 △2023년 익산시 푸드플랜 추진 현황보고 △먹거리위원회 워킹그룹 활동보고 및 안건 △2024년 신규사업 및 기타토의 등 시 먹거리 정책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학교급식사업 직영전환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 및 로컬가공품을 공급함은 물론 지리적·규모적 이유로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한 소규모 공동구매학교(26개교)에 전품목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먹거리 불균형 해소를 성공적인 푸드플랜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대학(원광대, 원광보건대) 대학생들에게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토대로 아침 간편식을 1천원에 제공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성공적인 먹거리 복지 정책으로 꼽았다.

또 이 자리에서는 내년 학교급식을 기반으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550원… 2.5% 인상

군산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90원)보다 260원 오른 1만5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04,950원으로 올해 2,150,610원보다 5만 4,34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월급여 환산액(206만740원, 209시간 근로기준)보다는 14만4,2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서동축제, K-투어로 MZ · 외국인 관광객 겨냥

익산 서동축제가 다채로운 한류콘텐츠를 갖춘 K-투어로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동축제 기간에 맞춰 전라북도 유학생, 서포터즈, 내·외국인 등 총 130명 대상 K-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MZ세대를 겨냥한 뉴노멀 여행코스 개발 및 운영 사업의 일환이다. 서동축제 기간 동안 전북 지역 대학 유학생과 서포터즈 Win-Win's, 근대 백제 역사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과 함께 한다.

참가자들은 고스락 등 익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는다. 또 MZ세대들에게 떠오르는 하림 키친 투어와 함께 서동 축제장에서 이색 공연, 체험 등을 즐긴다. 이번 K-투어에 참가한 이들의 경험은 외부에 세계문화유산도시 익산의 매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매개체가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